

# 충성대신보

제 198호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 02 학교소식 4사 4색 인문학 북 콘서트
- 03 학교소식 육군3사관학교 탄소중립 Week 시행
- 04 학교소식 2022 군악 힐링 콘서트
- 06 생도광장 사관생도 국내·외 문무 탐방
- 08 생도광장 군 환경리더 양성 아카데미
- 10 오피니언 사회 저명인사 칼럼
- 14 동문소식 동문(同門)의 소리
- 16 발전기금 발전재단 소식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방성대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논설위원 황수현 최재호 민병후 정병삼 / 편집담당 김진규 / 편집국장생도 김수현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http://www.kaay.mil.kr)

198호 사진제공 및 편집: 상병 이청하, 송동익, 김세중, 김영우, 일병 설영환



# 사람을 품는 리더로 모티베이션 하라!

학교는 지난 11월 25일 교내 최무선실 등 4곳의 장소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함양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견지한 군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인 4색 인문학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그간 평소에도 베스트셀러 도서의 저자를 초청하여 관련 특강을 여러 번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4곳의 장소에서 4명의 인문학 도서 저자를 초청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이색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북 콘서트는 사전에 생도들에게 4종류의 인문학 도서를 배부하여 미리 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개인이 직접 만나보고 싶은 저자의 강연을 개인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북 콘서트를 통해 직접 생각을 전해 듣고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다.

4인 4색 북 콘서트에 초청된 강연진과 강연주제는 ▶오수향 연구소장(SHO대화심리연구소) '코로나 블루시대, 소통으로 소울(疏鬱)하라' ▶노병천 교수(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고수가 되는 길' ▶송진구 교수(가천대학교) '떠나라! 그래야 보인다' ▶조서환 대표(조서환마케팅 그룹) '행복한 인생을 위해 스스로 동기유발 하라'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강사진의 상호 이해와 협의 속에 기획되었으며, 강사들은 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과 더불어 생도들에게 성공적인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생의 지혜와 격려 메시지를 함께 담아 전달했다.

소령 이상민

## “4人 4色” 다양한 인문학 도서 저자 초청 인문학 북 콘서트



▲ 오수향 연구소장



▲ 송진구 교수



▲ 노병천 교수



▲ 조서환 대표

## 4차 산업혁명 시대, 군 리더십 리프레이밍

## 제10회 충성대 리더십 세미나, 생도 참여형 리더십 연구 발표



▲ 최병순 박사의 군 리더십 인식 전환을 위한 강연

학교는 지난 12월 9일, 사관생도들의 올바른 리더십 함양과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제10회 충성대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사관생도를 비롯한 육군·해병대 리더십센터, 국군간호사관학교 관계관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군 리더십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최병순 前 국방대 교수가 '군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인식-행복하고 성공하는 리더'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군 조직과 리더십에 대한 인식틀을 전환, 즉 리프레이밍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법을 제시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여 명의 생도가 5개의 팀을 이뤄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XAI(설명가능한 인공지능), 메타버스, KANO 모형 및 AHP 기법 등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접목하여 직접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생도 참여형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소령 이상민

## 사관생도 모교 방문 홍보출장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모교 방문 홍보출장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출장은 생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졸업했던 모교를 직접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육군3사관학교를 소개하고 입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

는 시간을 가졌으며, 옛 추억을 떠올림과 동시에 사관생도의 멋과 품위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복을 입고 은사님을 직접 찾아 뵙게 되어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니는 홍보가 되었다.

학생들은 세계 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인 3사관학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서울시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꿈꾸었던 장교가 되는 방법에 3사관학교 입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다"며 "학업과 체력단련에 매진하여 꼭 입교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생도들이 출신 모교를 방문하여 학교 소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탄소는 Down↘ 산소는 Up↗, 탄소중립 Week 시행

탄소발생 저감 위한 플로깅, 현장견학, 학술세미나,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 탄소 중립을 주제로 제작한 디오라마 등 작품전 시물 관람

학교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1주일간 'KAAY 탄소 중립 Week' 기간으로 선정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6월, 사관학교 중에서 처음으로 '탄소 중립 캠퍼스'로 나아가기 위한 선포식을 실시한 이후, 꾸준히 환경보전 실천과 붐 조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탄소 중립 Week' 행사도 그 일환으로 실시했다.

행사 기간에는 ▶대화강 국가 정원 현장 견학, ▶산소 나눔 행사, ▶환경캠페인 홍보부스 운영, ▶플로깅(걸으면서 쓰레기 줍기), ▶환경보호 작품 전시회, ▶국립생태원 차진열 박사(조사평가연구본부장) 초빙 강연, ▶경북 환경연수원 합창단 공연 등 학생들이 관련 지식을 배우고 직접 체험하며, 공연을 관람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생도들은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포스터, UCC, 디오라마 등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하고 이를 전시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천시 금호강 일원에서 플로깅(Plogging 쓰레기를 주으며 조깅하기)을 통해 단순한 하천 정화의 차원을 넘어서 탄소 중립의 목적도 달성하며 지역사회 환경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소령 이상민



▲ 금호강 일원에서 플로깅 실시 후단체 기념촬영

### 국방정책 민간자문위원 학교 방문

전투력 발휘 근간 초급장교 우수자원 획득 노력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군인권개선협의회 민간위원, 학교 주요 직위자들과의 기념사진

지난 11월 2일,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와 군인 권개선포럼의 민간위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초급

장교 양성 교육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방문에서 민간위원들은 학교장(소장 방성대)과의 환담 및 3·4학년 생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초급장교 지원을 하락을 막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10여 명의 여생도에게 지원 동기와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들었다. 아울러 학교 식당을 찾아 장병 급식을 체험하며 식당 환경과 생도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확인했다.

민간위원들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2023~2027 군인 복무기본정책'을 연내 수립·확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및 복

무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주무관 길진규

### 공군사관학교 역사탐방단 본교 견학



▲ 학교방문 및 교류행사 후기념 촬영

지난 11월 22일, 공군사관학교 생도 21명이 학교를 방문하여 영천 전투에 대해 학습하고 군사사학과 생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군사관학교 역사탐방단은 지역별 주요 역사와 전투사례를 학습하는 공사 내 자체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문은 공사 생도들이 경북지역 역사 탐방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영천전투에 대해 학습하고 전공 생도와 교류도 추진하는 취지에 계획되었다.

공사 생도들은 학교 투어, 호국정 방문, 청운관 및 충용관 견학 등을 거친 후 군사사학과 생도들과 함께 영천전투에 대해 학습하고 상호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위 박영진

### 제12회 전국 대학생 안보·국방 논문 공모전 장려상 수상

지난 11월 22일, 국방시스템학과 58기 한유나 생도가 '제12회 전국 대학생 안보·국방 논문 공모전'에서 장려 논문상을 받았다. 국방부 후원, (사)한국위기 관리연구소 주최의 이번 논문 공모전은 전국 대학생과 사관생도·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국가관 고양 및 안보 의식 제고 등을 위해 2010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36명이 참가, 본선 11명이 선정돼 22일 상명대에서 본선이 진행되었고 한유나 생도는 이번 공모전에서 '군사시설 타운화 발전방안 연구 : KANO 및 AHP 분석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주무관 길진규



▲ 58기 한유나 생도가 장려논문상을 수상받는 모습



**2022 군악 힐링 콘서트** 11. 28. 15:00 충성강당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군악대 연주곡 공연  
걸그룹 '플로리아' 공연  
'이영주' 마술사의 마술 공연

### 군악대, 외부협연, 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화합 2022 군악 힐링 콘서트

지난 11월 28일, 학교 내 장병들을 격려하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기 위한 2022 군악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여 병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시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2022 충성제 군악연주회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군무지원단, 교육지원대, 군사경찰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악 힐링 콘서트를 진행하여 장병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공연은 오프닝 연주, 부대별 대장/가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1부 연주(연주곡, 색소폰 협연, 대구대학교 치어리더 비호 응원단의 공연), 2부 특별무대(마술, 시 낭송, 군무지원단장(정성환 대령) 공연, 군악대의 월드컵 응원 송 메들리, 초대가수 걸그룹 '플로리아' 공연)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군악대 전 출연진의 피날레 공연으로 끝을 맺었다.

주무관 길진규

### 학교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문 행사

주무관 길진규



성운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11. 23)



POSTECH 김무환 총장 교류협력 방문  
포항공대(POSTECH)(12. 5)



영천교육지원청 교장단 교류협력 방문  
영천시 교육장·교장단(12. 13)



경북과학대학교(12. 19)



경북대학교(12. 23)

### 제41대 생도대장 남진오 장군 취임



▲ 준장(진) 남진오 ▲ 제41대 생도대장 취임식 행사간 기념사진

지난 12월 26일 남진오 준장(진)(3사 30기)이 생체계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작전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생도대장은 51사단 보병여단장과 부사단장, 2군사 전문가로서 향후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40대 전임 생도대장 임국기 준장은 지난 12월 8일 제13특수임년 학교의 부생도대장을 역임하여 시관생도양무여단장으로 취임했다.

주무관 길진규

### 11, 12월 학교 간부 전·출입자 명단

**전입 육군3사관학교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           |             |             |
|------------|-----------|-------------|-------------|
| ● 학교본부 주정용 | ● 행정부 김원갑 | ● 생도대 정인홍   | ● 군무지원 단여정원 |
| ● 학교본부 김재형 | ● 행정부 강수정 | ● 생도대 류지만   | ● 군무지원 단김민술 |
| ● 학교본부 권영탁 | ● 행정부 박현욱 | ● 생도대 박대희   | ● 군무지원 단김도우 |
| ● 학교본부 안성은 | ● 생도대 신성균 | ● 생도대 황초원   | ● 군무지원 단한윤미 |
| ● 학교본부 이현승 | ● 생도대 이태현 | ● 교수부 장진혁   | ● 군무지원 단김유신 |
| ● 행정부 윤진호  | ● 생도대 이정건 | ● 교수부 문동학   | ● 군무지원 단박지성 |
| ● 행정부 김명철  | ● 생도대 이건희 | ● 군무지원 단문길섭 |             |

**전출 육군3사관학교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            |                 |             |                 |
|------------|-----------------|-------------|-----------------|
| ● 학교본부 백동균 | ● 합참            | ● 생도대 김대섭   | ● 육대(소령지휘 참모과정) |
| ● 학교본부 강훈  | ● 교육사           | ● 생도대 이상현   | ● 2작전사          |
| ● 행정부 전동우  | ● 국방부           | ● 교수부 김영민   | ● 육대(소령지휘 참모과정) |
| ● 행정부 윤진석  | ● 5군단           | ● 교수부 최용찬   | ● 육대(소령지휘 참모과정) |
| ● 행정부 윤대민  | ● 2작사           | ● 교수부 조진우   | ● 육대(소령지휘 참모과정) |
| ● 생도대 김용태  | ● 2작전사          | ● 교수부 변혜인   | ● 육대(소령지휘 참모과정) |
| ● 생도대 황범진  | ● 육대(소령지휘 참모과정) | ● 교수부 이현직   | ● 육대(소령지휘 참모과정) |
| ● 생도대 양현진  | ● 육대(소령지휘 참모과정) | ● 군무지원 단이대희 | ● 2수송교육여단       |
| ● 생도대 백인태  | ● 육대(소령지휘 참모과정) |             |                 |

# 생도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Manners maketh man

영화 '킹스맨'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유명한 대사가 있다. 'Manners maketh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란 단지 옷을 잘 입는 것이 아닌 인격과 품성 등 내면의 아름다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생도 생활을 경험하면서 점차 일상이 익숙해질 때쯤 다른 중요한 것들이 보이게 된다. 바로 "매너"다. 매너는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까지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함부로 끊지 않는 것,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다수가 보는 앞에서 특징인을 지도하지 않는 것, 과도한 사생활을 캐묻지 않는 것. 이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습적인 부분조차 잘 지키지 않는 것은 매너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생도 생활 동안 군사학과 일반학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만 매너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장차 소위로 임관하여 이전으로 간다면 훨씬 더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매너는 진정한 전우애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면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 즉 매너를 갖추고 다가간다면 일상에서도 부대 생활에서도 더욱 돋보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잡혔어?

생도들은 학업 스트레스와 부단한 체력단련으로 인해 쌓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본가로 떠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생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 바로 "출타 신고"이다. 출타 신고는 생도들이 외박 출발 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사의 일종인데 단 한 명의 생도라도 이에 늦거나 불참 시 신고가 늦어져 전 출타자들의 출타 지연이 된다. 영천을 벗어날 수 있는 무궁화호의 출발 시간은 1831분 대부분의 생도는 집이 멀기에 이 기차를 타야 집으로 갈 수 있다 때문에 열차를 타기 위해 우리 생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점호에 늦지 않으려고 서두른다. 1755분 출타 신고 집합 완료 시간이 되고 점호를 시작한다. 이때 생도들은 능숙하게 한 손으로 카카오택시 앱으로 배차 신청을 누르고 잼싸게 바지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넣는다. 짜깁짜깁... 긴장의 연속인 시간이 지난 후 뒷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린다. '됐다.' 이것은 분명히 배차가 완료되었다는 진동일 것이다. 드디어 출타 신고가 끝나고 배차된 택시의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폰을 확인하는

A 생도는 이내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때 옆에서 같이 택시를 타기로 했던 B 생도가 하얗게 질린 A 생도에게 묻는다. "잡혔어?"

## 숨방망이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가? 이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 흔히들 사용하는 말이다. 지금 생도대에서도 이러한 숨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점호마다 외치는 구호 그리고 각종 행사 시에 반드시 제창하는 사관생도 신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킨다" 이처럼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관생도의 모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명예가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가 명예를 얻고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관생도의 명예를 스스로 어기고는 처벌조차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행정예규를 벗어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생도들 그들의 진술에서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감경된 처벌을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과 같이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생도들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말한다. 우리의 명예가 이렇게도 처참하고 수준이 낮았는가?

## 주인의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생도들에게 주인의식이란 2년간 삶을 함께하는 생도대에 대한 애정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훈육관들과 지휘근무 생도들은 항상 주인의식을 강조한다. 생도대에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중대 비품을 내 사비로 산 것처럼 아껴 쓰고 청소시간 동안 내 집을 청소하듯이 깨끗이 청소하고, 생도대의 시설물이나 물건들을 나의 것처럼 소중히 그리고 청결하게 다루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산처럼 쌓여만 가는 배식대의 쓰레기통을 보고도 자신의 쓰레기로 탐을 쌓는 생도들이 있고, 식탁은 식사 후 제대로 닦지 않아 얼룩들이 생겨있으며, 충용관의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청소를 담당하는 생활관 인원들이 아니라면 아무도 자발적으로 청소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생도들은 주인의식이 있긴 한 것일까"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본인의 집이었으면 식탁이었으면, 화장실이었으면 저렇게 두지 않고 먼저 나셨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흐름은 '주인의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재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라는 생각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해야 할 소임을 다하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실천하기 쉽지 않을까?

##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모든 생도의 의구심을 품는 통제가 내려왔다. 차주부터 분열학과출장 미 실시, 22시 이후 휴대폰 정위치, 중대 당직 폐지 등이다. 생도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많이 자고 수업에 열중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러한 통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에 생도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A 생도 : 그거 들었어? 차주부터 시행되는 생도대 통제 말이야!

A 생도 : 근데 정말 생도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많이 자서 저런 통제를 하는 걸까?

B 생도 : 그러게... 분열학과출장은 오히려 아침에 잠을 깨우게 해주는데 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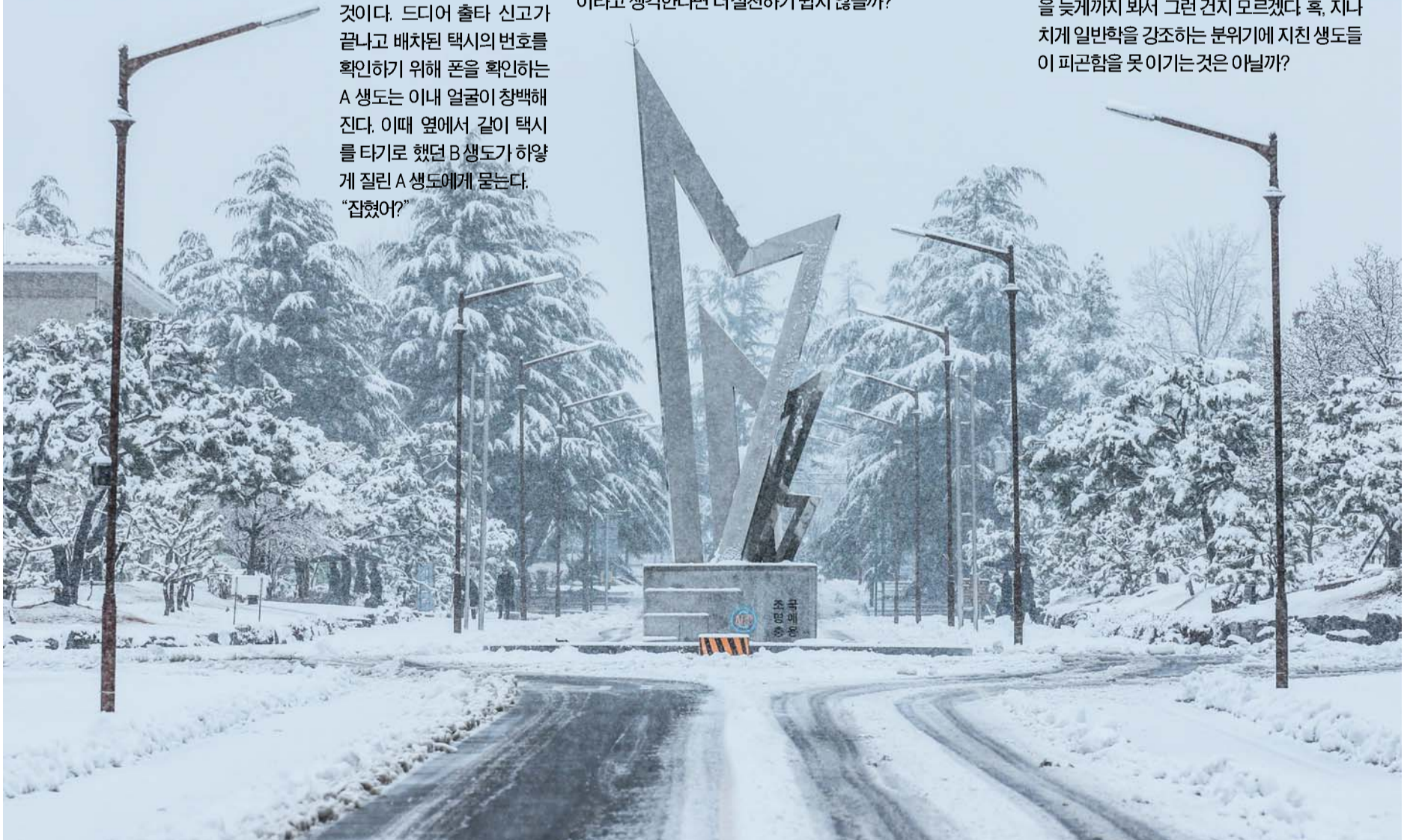
A 생도 : 그러니까, 휴대폰은 그렇다고 쳐도 당직은 왜...?

B 생도 : 그리고 또 대대 당직은 존재하는데 중대, 여단 당직만 사라지는 거래!

A 생도 : 정말 저런 것을 없앤다고 생도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안 잘까?

B 생도 : 오히려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더 억지스러운 통제 아닐까?

생도들은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생도들이 많은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말 저러한 사유로 생도들이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에는 과연 생도들의 의견은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인지, 생도들이 정말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이유가 휴대폰을 늦게까지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 혹, 지나치게 일반학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지친 생도들이 피곤함을 못이기는 것은 아닐까?



DAY 1, 2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중간시험’이라는 힘든 산맥을 넘긴 59기 사관생도들에게 문무 탐방의 날이 밝았다. 이른 새벽부터 버스에 몸을 실은 우리는 울진 후포항에 도착하였다. 어스름한 동해의 바다 내음이 우리를 감쌌다. 배에서 바라본 바다의 풍경은 장관이었고, 배는 생각보다 빨랐다. 리조트에 짐을 풀고 난 후, 3사 19기 선배님이신 현재 울릉도 군수(예비역 준장 남한권)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얼마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나왔을 때의 경험담, 대처 방안을 들으면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장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둘째 날에는 해군 전대를 방문하여 해군 장병들의 수고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어딜 돌아봐도 바다밖에 없었던 울릉도의 평범한 모습과 다른, 육지만 보이는 나리분지를 꽤 인상적으로 보았다. 점심을 먹고 관음도로 향하여 그곳을 누비며 추억을 쌓았다. 끝없이 펼쳐진 동해의 광활한 바다를 보며 앞으로 펼쳐질 59기의 미래 같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묘했다.

DAY 3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독도에 가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잠을 설쳤다. 단허였던 문을 열어보니 밝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 우리는 소리를 질렀다. “독도에 갈 수 있다!”

독도에 내리니 독도수비대원들이 우리를 환영해주었다.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져 있는 독도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기 충분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독도를 느끼기엔 충분했던 시간이었다.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작아져 가는 울릉도의 모습을 눈에 담고, 그 모습을 기억 한쪽에 고이 넣어두었다.

59기 기자생도  
김대영  
이승엽

59기 국내 탐방

울릉도 · 독도, 11.15~11.17

58기 국내 탐방

제주도, 11.14~11.17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적인 문무 탐방을 한 것과 달리, 2022년에는 풍성한 문무 탐방을 경험할 수 있었다.

11월 14일, 제주도에 서의 첫날은 관덕정, 항일기념관, 첫알오름, 송악산 일정이었다. 오전에 방문한 항일기념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항거하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야외에는 애국지사들을 추모하는 추모탑이 있었다. 그곳을 걷다 보니 대한독립을 외치던 독립운동가들의 열을 느낄 수 있었다.

제주도에 가면 오름이란 단어를 많이 듣게 된다. 오름이란 제주도에서 백록담을 제외한 단성화산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송악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는 첫알오름이 있다. 첫알오름 입구에는 희생자 추모비가 있었다. 첫알오름은 제주 4.3사건 당시 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장소이다.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에 숙연해졌으며, 이러한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11월 15일, 우도로 가는 배 안에서 보는 푸른 바다는 육지에서 보는 것과 색달랐다. ‘검멀레’란 제주도 방언으로 검은 모래라는 의미다. 검멀레해수욕장의 검은 모래, 푸른 바다, 웅장한 동굴의 조합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아름다웠다. 오후에는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하였다. 생도들은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는 해군의 역할과 7기동전단의 주임무 및 미래 비전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타군에 대한 견문을 넓히며 차후 장교가 되어 합동작전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11월 16일, 생도들은 백록담 정상까지 등산하였다. 구름과 맞닿아 있는 백록담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성취감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다. 등·하산 간의 쌀쌀한 바람도 등산객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이겨낼 수 있었다. 11월 17일, 오전에는 중성대로 돌아갈 준비를 했고, 오후에는 제주 4·3 평화기념관, 도두봉, 무지개 해안도로를 방문하였다. 4·3 평화기념관에서는 참혹했던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며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장소인 도두봉의 정상에서 아름다운 바다와 공황을 한 눈에 내려다본 후 무지개 해안도로에서 동기들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쌓여 있는 스트레스와 걱정들을 모두 털어냈다. 3박 4일이 짧다고 느껴 이쉬움도 많았지만, 제주도를 경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생도들은 이번 문무 탐방을 통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으며,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에 숨겨진 아픔을 배울 수 있었다.

58기 기자생도 김관우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있는 곳이다. 케이블 카를 타고 20분 정도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면 그곳엔 구름보다 높은 곳에서 리조트가 형성되어있는 초자연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거대한 손이 절벽 위의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듯한 모습의 구조물인 골든브릿지는 마치 신이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다낭은 1년 내내 30도가 넘나들 정도로 무더운 여름 날씨를 자랑한다. 이런 무더운 날씨를 피해간 유일한 장소가 바로 바나힐이기도 하다. 바나힐은 1,500m 가까이 되는 높이 덕분에 일반적인 다낭의 기온보다 10~15℃ 낮으며 항상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알아낸 식민지배 당시의 프랑스인들은 그곳에

이 다니는 곳곳에 배치되어 치안 유지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특히 관광지에서 많이 보였는데 한가지 의외였던 것은 단순한 치안 유지 활동뿐만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거나 친절을 베풀면서 업무 외적으로도 사회질서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는 것이었다. 내가 기존에 생각 해왔던 사회주의 사회의 모습은 경제가 정체되어 있고 사람들이 의욕 없이 게으른 모습이었지만 다낭에서 보았던 베트남의 모습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정열적이었다. 이를 대변하듯이 다낭의 야시장 거리는 낮보다 더 활기차고 밝았으며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길거리 버스킹과 같은 볼거리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실제로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

이번 문무 탐방은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다가 코로나가 안정화 됨에 따라 3년 만에 재개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 해외 문무 탐방 목적지는 베트남의 항구도시로 유명한 다낭이었다. 맨 처음 다낭이라는 목적지를 들었을 때 다낭에 드러난 베트남의 역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다.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중국과 프랑스에 식민지배를 당했던 역사가 있다. 또한, 사회주의의 정치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유념하면서 과연 다낭에는 어떤 방식의 문화가 나타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품고 다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먼저 다낭에서 베트남의 식민지배 역사를 느끼게 한 곳은 다낭의 '바나힐'이라는 곳이었다. 바나힐은 해발 1500m 높이에 있는 리조트이며

## 58기 국외 탐방

베트남 다낭, 11.14~11.17

별장을 만들라 지시하였고 이 시설이 오늘날의 바나힐이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바나힐을 바라보니 처음 봤을 때처럼 마냥 아름답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못했다. 특히, 바나힐 내의 프랑스 마을을 둘러볼 때는 하늘 위의 이국적인 풍경에 놀라면서도 씩씩한 감정이 든 것이 기억에 남는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사회주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시내 곳곳에 있었던 공인들이었다. 이들은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군복과 비슷한 근무복을 입고 사람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루었던 한강의 기적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58기, 하늘길이 열린다!



“문무 탐방을 통해 다낭을 다녀오면서 한국과는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후배들도 국외 문무 탐방을 통해 국제적신사가 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58기자생도 박재형

# 대두되는 환경안보, 군 환경리더가 앞장 서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환경에서의 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관점과 경험을 가진 그린(Green) 리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 환경리더 과정에서 생도들은 학술세미나 참가, 태화강 국가 정원 현장견학, 국립 생태원 박사 초빙 강연, 환경캠페인 홍보부스 운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군 환경 리더로서의역량을 기르고 있다. 수료 인원 중 '탄소중립 캠퍼스는 생도가 이끈다' 라는 작품을 제작한 58기 정은수, 박건희, 이현우 생도와의 인터뷰를 소개해 본다.

**Q: 본인들이 제작한 '탄생'에 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희가 제작한 포트폴리오 제목, '탄생'은 '탄소중립 캠퍼스는 생도가 이끈다'는 말의 줄임말로 학교가 탄소 중립 캠퍼스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안한 포트폴리오입니다.

**Q: 포트폴리오에 많은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나요?**

A: 군 환경리더 과정을 수강하면서 여러 분야 교수님들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되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환경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으로,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게 되어 여러 제안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군 환경리더 과정을 수료하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었나요?**

A: 현재 군은 군사적 위기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위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서 기후 붕괴가 다가오게 되면 수많은 범죄와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마찰들은 군사력을 요구할 것이고 바로 군이 환경안보에 주목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군 환경리더 과정을 수강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기후위기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기후위기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깨닫게 되었고 장차 군의 장교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자세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환경의 전문적인 식견을 쌓아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섭적인 인재가 되는 것이 군과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해주세요.**

A: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일회용품 자주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조금 덜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군 환경리더 과정을 참여하게 되면서 환경이라는 분야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 감수성을 심어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임관하여 군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미래를 생각하며 환경에도 신경 쓸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생도가 군 환경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58기 기자생도 이 현우



군 환경리더 양성 과정은 환경문제에 대한 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2030 탄소 중립 캠퍼스 실현의 일환이다.

## 제21회 대학생 안보토론타워 사관생도가 말하는 안보란?

올해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제21회 대학생 안보토론타워는 육군 목표 및 비전 2030과 관련된 과학·기술, 외교·통일, 사회·복지, 한미동맹, 기후변화 등 총 5개 분야에서 개인 발표와 정책 비교 토론이 이뤄졌다. 육군 비전 2030은 현재 우리 육군의 목표 및 방향성이며, 첨단과학기술군, 미래지향적 인재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육군 비전 2030에 대해 현재 육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미래 정책에 토론하며 우리 육군의 발전 가능성을 논하는 자리였다.

**A생도: 대한민국 육군의미래 전장에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고, 지향성 에너지 비로한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B생도: 현재 육군의 사이버전 안보 역량 강화, 드론을 비롯한 무인 전투체계 확립, 시를 기반으로 한 사교전달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을 알게 되고 상대 팀과 토론을 하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안보토론타워를 통해 생도들은 정책들을 토론하면서 육군의 미래안보 기틀을 알게 되었고, 이는 임관 후 야전에서 간부로서 병사들을 지휘할 생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어 제21회 대학생 안보토론타워에서 한미동맹분과장려상을 수상한 58기 박종목 생도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한미동맹분과 수상자(장려상) 58기 박종목 생도 인터뷰

**Q: 어떠한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

A: 약장 5줄 만들고 싶어서요.(웃음), 3학년 1학기 때부터 공군사관학교 리더십 심포지엄을 포함해서 많은 학술대회에 도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마침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하는 안보토론타워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학술대회에 도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분과로 개인 발표를 진행하였는가?**

A: 제가 참여한 분과는 한미동맹 분과였고,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한미동맹의 미래

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과거 발생한 6.25 전쟁에 대해 유사한 점을 느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러 사례를 한미동맹에 반면교사 삼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개인 발표의 내용은 무엇인가?**

A: 우크라이나 전쟁 전반의 상황을 통해 2000년대 후반의 경제불황으로부터 촉발된 자국우선주의, 미국발 패권주의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진영의 결집이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킨다는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이 대두된 비국가적 특성의 하이브리드 전이 전쟁에 미친 영향을 주된 교훈으로 도출했습니다. 이

러한 교훈을 통해 한미동맹의 경제협력 분야로의 확대, 자유주의 진영의 최전선 국가로서 권위주의 국가의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및 한미동맹에서의 사이버 정보전 훈련 강화와 같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Q: 수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무엇보다도 안보토론타워에 나가겠다고 말할 때 망설임 없이 도와주고 조언해주었던 58기 군사사학과 정원진 생도와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군사사학과 박동휘 교수님, 경제경영학과 정대규 교수님의 도움이 정말로 컸습니다. 또한, 개인분과 발표 중 준비해 간 것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조금 의기소침한 상태로 토론을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토론에 임했던 것이 수상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참여하고 느낀 점이 있다면?**

A: 사관생도임에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배경과 같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아 수상했음에도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북한 및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 만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 전쟁에 대한 대비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59기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

A: 일반학, 군사학, 체력단련과 같이 생도 생활이 힘들고 바쁘더라도 최대한 많은 것을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안보토론타워와 중간시험, 토의 공부와 같은 것들을 같이 준비하며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지만 그러한 기억들이 모두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58기 국장생도 김수현  
59기 기자생도 오찬울





# 논단 신 냉전의 시대 : 패권지향적 국가전략추구와 파워 게임 <하>

## 핵, 공포의 균형 붕괴 조짐?



소령 윤희철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과장

### (1)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열세를 보이던 우크라이나는 전황을 뒤집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분 동원령을 내려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러시아가 열세에 몰렸다는 증거였다. 9월 30일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4곳을 불법으로 병합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편입한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탈환 작전이 시작되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10월 1일에는 푸틴의 최측근 중의 한 명인 람잔 카디로프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이 국경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7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핵전쟁 위협에 직면했으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에 비유했다. 곧이어 백악관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푸틴과 러시아군의 전술핵무기 발사입체 훈련(출처: AP)

### (2) 핵무기의 역사 및 안보 유지에 관한 견해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을 목도한 국제사회는 1945년 이후 핵무기 확산을 국제안보 의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국제사회의 핵무기 통제 노력으로 핵무기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을 막았으나, 5대 핵 개발국가를 제외하고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이 핵을 무기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핵탄두 수는 1955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대되었으나, 1991년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양측간의 전략 무기감축조약(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과 1993년의 START II에 의해 핵탄두 숫자를 줄이는 데 합의하였다. 2022년 현재, 미국 5,425기, 러시아 5,975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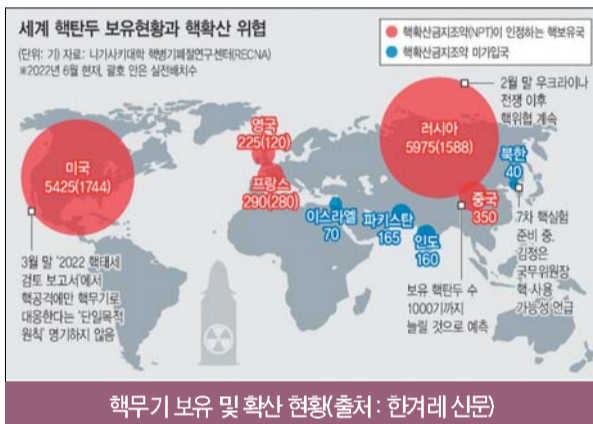
핵무기가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일부는 핵무기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기에 상징적 의미에서의 평화를 가져다준다고 주장한다. 즉 실제 사용된 사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



일본 히로시마 원폭투하(출처: MBN)

며, 가장 최고조의 위기에 다다른 쿠바 미사일 위기 시에 미소 양국은 이를 인류 공멸의 위협으로 인식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해소하였다. 핵무기는 공격자들에 대한 억지의 역할을 하였다. 즉 핵전쟁 발생 시 상호확증 파괴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로 이어지는 상황이었기에 미국-소련은 선불리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반면 일부에서는 핵무기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핵 억지 체계는 위험한 발상이며 억지는 오판으로 인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3)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에 약 2,000개의 전술핵무기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술핵은 순항미사일, 포탄 등 다양한 유형의 투발 수단에 탑재가 가능하며, 대함 미사일, 어뢰, 폭뢰 등 항공기나 선박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러시아는 최근 전술핵무기의 사거리와 정확도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미 허드슨 연구소의 월터 러셀 미드 석좌 연구원은 푸틴은 러시아의 막강한 핵 무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으며 소련 당시의 초강대국의 위상을 되찾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10월 현재, 핵무기를 이동시키며 서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의 핵 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방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러시아 중부 지역에서 포착되었으며 핵 어뢰 포세이돈을 탑재한 러시아 잠수함 K-329 벨고로드가 북극해를 향해 출항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 공격에 대비하여 수도 키이우에 핵전쟁 대피소를 마련하였으며, 의약품 요오드화칼륨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은 실제 핵 공격을 하기보다는 서방에 대한 무력시위와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도 있다. 푸틴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을 편입시

키고 미국과의 종전을 이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 정치평론가야바스 갈리아모프는 푸틴의 승리전략은 미치광이 모습을 보여주어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푸틴의 요구를 들어 주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에 직면한 미국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 공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동맹



핵 훈련에 돌입한 러시아(출처: 뉴스1)

국들과 함께 푸틴의 핵 사용 명령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핵잠수함 벨고 로드함이 '지구 종말의 무기(doomsday weapon)'로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싣고 북극해로 출항했다는 소식이 나온 다음 날, 미국은 현존 세계 최강의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 전단을 대서양과 지중해로 파견했다.

### (4) 우리에게 주는 함의

북한은 9월 8일 핵 무력 정책법을 채택하여 핵 무력의 사명과 사용조건을 명시하고 필요시 핵무기를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천명했다.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 연구원의 연구는 북한은 2020년 핵무기를 최대 116발까지 보유하고 매년 12-18발씩 생산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또한, 제7차 핵실험을 통해 실전용 전술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북한에게 핵무기 사용에 대한 오판을 심어주게 된다. 국제사회는 푸틴의 핵 사용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여 핵 사용은 곧 파멸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냉전기에 유지되었던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의 붕괴 조짐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 김정은과 회성-17형 미사일(출처: 뉴스1, 연합뉴스)

칼럼 I

## 미래 군 생활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넓히자



중령 박찬용  
(사회학처 경제경영학 교수)

“미래軍 생활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넓히자” 이 말은 군 선배로서 생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다. 생도들이 장교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와 넓은 시야를 갖도록 정책부서에서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는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軍의 정책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국방기획관리체계’를 알아야 한다. 정책부서의 업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방기획관리’라고 할 수 있다. **국방기획관리**란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이를 달성토록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 및 운영함으로써 국방기능을 극대화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 활동은 **기획**

체계, **계획체계**, **예산편성체계**, **집행체계**, **분석평가체계**로 구분된다. 생도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자신의 軍 비전을 설계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 번째, **기획체계**는 예상되는 안보 위협을 분석하여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기획하고 건설하며 유지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업무는 주로 국방부 및 합참, 육군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최종산물은 다양한 국방 분야 정책서들로서 국방기본정책서,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개혁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JMS),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육군기본정책서, 육군전략서 등이 있으며 ‘기획체계’와 관련된 업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계획체계**라 함은 ‘기획체계’에서 설정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을 예측·판단하고, 연도별·사업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의 최종산물은 ‘국방중기계획서’와 ‘5년 단위 국방개혁추진계획’ 등이 있다.

세 번째, **예산편성체계**라 함은 예산

을 국회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절차로서 국방중기계획서에서 반영된 사업과 재원을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종산물은 ‘예산요구서’와 ‘예산서’이다.

네 번째, **집행체계**라 함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집행업무는 국방부에서 야전부대까지 모든 제대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최종산물은 ‘예산배정계획서’, ‘예산결산보고서’ 등이 있다.

마지막 **분석평가체계**라 함은 기획·계획으로부터 집행 및 운용에 이르는 기획관리 전 단계에 걸쳐 사업 또는 전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이다. 국방목표는 잘 설정한 것인지, 자원은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집행을 잘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사실 국방부부터 육군본부, 야전부대(지작사급)까지 모든 부서가 이러한 기획관리업무 절차에 맞춰 조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①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서로 만드는 부서, 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의 재원을 판단하고 반영하는 부서, ③재원을 판단해 놓은 정책을 다음 해에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판단하고 반영되도록 정부기재

부와 국회에 협의하는 부서가 있다. 또한, ④올해 예산을 사용하여 정책을 사업화하여 집행하는 부서, ⑤사업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부서, 이러한 ⑥ 전반적인 정책업무를 감독하는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장교들이 전략과 전술에 관심이 많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軍의 미래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정책영역의 업무에는 경험과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정책부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군 선배의 입장에서 생도들이 이러한 분야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군을 위해 복무해주었으면 한다. 생도들은 20~30년 후에 군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간성이다.

생도들이 군 생활과 경력에 대한 비전들을 세울 때 업무의 중요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고민했으면 한다. 2년간의 생도생활은 장교단의 일원으로서 군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분야에서 능력을 펼치면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생도들에게 “미래 軍 생활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넓히자”라고 말하고 싶다. 생도들이 개인의 軍 비전과 역할, 사명을 인식해 나갈 때 국방 분야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가졌으면 한다.

칼럼 II

## ‘너’와 ‘나’를 알고 싶은 마음



중위 임소정  
(인문학처 심리학 교수)

“너 MBTI 가 뭐야?”는 이제 흔한 인사말이 되었다. 국가별 구글 트렌드 키워드 검색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3년째 ‘MBTI’를 가장 많이 검색한 국가로, MBTI는 어느덧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하였다. MBTI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각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융(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개발된 성격유형 검사이다. MBTI는 네 가지 양극적 선호 경향마다 둘 중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를 구분하여 성격유

형을 도출한다. 성격을 16개의 MBTI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는 일은 명쾌하다. 또한, 서로의 MBTI 유형을 교환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상대에 대해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범람하는 MBTI의 유형 속에서 우리가 MBTI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보거나, 선불리 판단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른 유형에 대한 설명도 나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 에너지의 방향          |                      |                     |                  |
|------------------|----------------------|---------------------|------------------|
| Extraversion 외향형 | 외부 환경이나 타인           | 내적인 생각과 자기 내부       | Introversion 내향형 |
| 정보수집 방식          |                      |                     |                  |
| Sensing 감각형      | 오감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 수집    | 추상적 연관성을 보며 큰 그림 이해 | Intuition 직관형    |
| 판단, 결정 방식        |                      |                     |                  |
| Thinking 사고형     | 진실·사실에 관심, 논리적 절차 중시 | 사람·관계에 관심, 상황을 참작   | Feeling 감정형      |
| 생활양식             |                      |                     |                  |
| Judging 판단형      | 계획적, 질서 정연           | 유연함, 즉흥적, 순발력       | Perceiving 인식형   |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버트럼 포러(B. R. Foner)는 성격 검사를 실시한 뒤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나누어 주고 얼마나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는지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무려 80%의 참가자는 검사 결과가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모두 똑같은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도 말이다. 인간은 성격에 대한 보편적인 묘사들이 자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해당 MBTI 유형으로 자신 및 다른 사람을 파악했다고 여기는 속단은 위험하다.

자신의 성격을 MBTI 유형이 잘 설명하고 있다면, 나의 성격 중 MBTI 유형과 일치하는 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나머지를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경우, MBTI 유형 설명에 등장하지 않는 본인의 장점과 잠재력에 주목할 수 없

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MBTI 유형으로만 단정 짓는다면, 그 사람만의 고유한 모습을 알 소중할 기회를 잃는다. 우리는 왜 자신의 MBTI 유형이 궁금했을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의 MBTI 유형을 물어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근원에는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이 자리한다. MBTI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선호’를 알고자 하는 도구이다. 이는 곧, 우리 모두 각자가 자연스럽고 편하게,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MBTI를 통해 내가 자연스럽고 편하게 여기는 세상은 어떤지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자연스럽고 편한 세상을 가지고 있음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힘이 나는 ‘필자’ (E)에게는 줄곧 혼자 있는 동생이 답답하겠지만, ‘동생’ (I)에게는 혼자 있는 방식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편하고 효과적 방법이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자연스럽고 편한 모습은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여기는 모습을 무엇인지 살피고 존중하는 한 해를 보내길 소망한다.

\* 무료 온라인 사이트상의 검사는 정식 검사가 아니다. 보급기관 어세스타(www.career4u.net)를 통해 정식 검사 및 해석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저명인사칼럼 I

## 태도의 품격과 능력



김대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

**개인의 품격을**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 상황을 대하는 태도 혹은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등 우리는 매 순간 자신만의 태도를 남에게 보이며 살아간다. 태도는 외모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걸어도 드러나는 내면의 영역이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습관이 몸에 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태도에

서 느껴지는 '품격'이라는 말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사람. 태도가 곧 품격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타인을 대함에 있어, 특히 자신보다 아랫사람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보일 줄 알고,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감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닮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겐 공통점이 있다. 태도에 '품격'이 넘친다는 것이다. 태도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 되는 것이다.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자주 인용되는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는 법'이란 것이 있다. 알파벳을 순서대로 A에는 1점, B에는 2점, C에는 3점, 맨 마지막 Z에 26점을 준 다음 영어 단어를 숫자로 점수를 내어본다면, 돈을 뜻하는 'Money'는 72점, 지식을 뜻하는 'Knowledge'는 96점이다.

그렇다면 100점이 되는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태도를 뜻하는 'Attitude'다. 우리가 평소 중요시하는 돈과 지식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같

은 씨앗을 심어 같은 양의 햇빛을 주고 똑같이 물을 주어도 사랑의 말, 긍정의 말을 건네 준 씨앗과 미움의 말, 부정의 말을 건네준 씨앗은 시간이 지나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다고 한다. 사랑의 말, 긍정의 말을 들으며 자란 식물이 더 튼튼하고 푸르게 자란다고 한다.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의 모든 것을 보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조국(祖國), 명예(名譽), 충용(忠勇)의 교훈 아래 정예장교를 꿈꾸는 생도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비즈니스 매너 컨설턴트인 로잔 토마스는 "프로의 세계에서 '태도'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라며 "태도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나아진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보상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나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무조건적인 성공이다."라고 말한다. 태도(Attitude)와 예의(Manner)가 관계를 좋게 만들며 부드럽고도 강력한 리더십의 근간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무엇보다 지휘관에게 필요한 덕목인 태도가 아닐까? 앞

으로 임관과 동시에 지휘관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여러분에게는 상급자이든 하급자이든 전우를 대하는 작은 태도도 부대의 사기에, 전투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사관학교 출신으로 합동참모의장을 지낸 이순진 장군은 전우를, 부하를 대하는 '품격있는 태도'로 유명하다. 2사단장재임 시절, 새벽 시간 사단 주요 도로를 제설하는 경비소대원들에게 운동복 차림으로 손수 탄 커피와 과자를 들고 걸어와 모든 소대원에게 나눠준 일화, 수도군단장 시절 신병 휴가를 나가는 이등병의 짐을 직접 트렁크에 싣고 기차역까지 데려다준 일화 등 병사들에게도 '순진이 형'이라 불리던 이순진 장군이 전우를 대하는 품격있는 태도는 그를 아직도 '참군인'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국가를 향한 무한한 충성의 태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열정적인 태도 등 군인에게 요구되는 여러 태도가 모여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란 군인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의 품격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저명인사칼럼 II

## 행복한 인생 여행을 위한 자산관리



김진석  
(한국경제지문연구소 소장)

**최근 금리가** 치솟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환율이 요동치는 경제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자산관리 전략은 어떠한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 길이 왕도이고 그 길이 바이블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에 첫발을 딛는 여러분들에게 기본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자산관리의 기본을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모두에게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재무적인 관점으로만 국한한다면 우리의 꿈은 경제적 자유에 있다. 예를 들면 결혼 준비, 관사 생활간 가재도구 준비, 차량, 자녀 교육 등을 고민하는 시기에 돈 걱정 없이 그만큼의 자산이 준비된 것이 경제적 자유이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재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국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 여러분이 사관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임지에 가서 보면 소위 '작계'라는 것이 있다. 바로 이 작전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재무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우리가 국방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작계는 전쟁을 하며 기관총 진지가 구축된 적 진지를 용기만 앞세워 돌격하거나 적 탱크 앞에 돌진하는, 용기는 가사하지만 무모한 방식으로 적을 대하면 결과는 뻔하다. 이런 망용 말고 제대로 적에게 대응하려면 우리는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적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분대 전투, 소대 전투를 보더라도 적의 진지를 공략하기 위해 어느 능선을 어떻게 우회하고 돌진하고 무력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목적은 하나이지만 그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규범이 필요하고 현장에서의 창의력도 필요하고, 이를 가능케 할 평소의 훈련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아는 것'이다. 사단급 병력이 주둔된 곳에 아무리 훈련이 잘된 아군이라 할지라도 소대 병력만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무전략도 이와 같다. 적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즉 인생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생은 우리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언제 결혼을

할 것인가? 자녀 계획은? 부모님 부양은? 주거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항목을 고민할 것인가? 최소한 삶의 계획 5대 항목만큼은 꼭 기억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자.

**첫째, 가족계획.** 관계와 관련된 항목으로 본인의 결혼, 자녀 계획, 부모님 부양 등의 항목들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주거계획.** 이는 부동산에 대한 항목으로 단순히 주거의 문제만이 아니고 투자의 문제와도 밀접한 부분이다. 주거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BOQ나 관사에서 생활하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부대 인근에서 집을 구해야 할 때가 오게 되고, 자녀의 교육 문제로 떨어져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느 지역에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투자가 들어갈 것인지 전망과 흐름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셋째, 업에 대한 계획.** 즉 진로계획. 나의 비전과 관련된 항목이다. 당연히 평생 군인이 되기를 바라고 사관학교에 들어왔지만, 여기서도 다양한 길이 있다. 병과도 정하고,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고, 이후의 진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에 고민하고 그 시기에 맞추어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진로계획이다.

넷째, 은퇴계획. 언젠가는 우리는 모두 은퇴를 하게 된다. 이미 군인연금 같은 준비되고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고민해야 한다. 인생은 점점 길어지고 전역이나 퇴직 후의 삶도 같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재무적인 것도 준비해야 하고, 일이나 여가 등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건강계획.** 무쇠라도 소회할 만한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 대위만 되더라도 체력은 달랠 것이다. 먼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잘 먹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무릇 초급장교의 가장 큰 덕목은 '나를 따르라' 이기에 더욱 그렇다. 영관급 이상이 되면 이는 더욱 중요하다. 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고 책임도 커진다. 이때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건강이 무너졌어도 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헬스 케어와 의료 관련 준비도 해두어야 한다.

이상 다섯 가지 항목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항목이며, 초급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인생의 청사진이므로 시간을 내어서 반드시 해 보기를 바란다. 물론 한번 세운 계획이 영원할 수는 없으며, 계획이란 상황에 따라 수정하면서 가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있는 삶은 없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여러분에게 안겨 줄 것이다. 부디 군인으로서도 성공하고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2022 트렌드 노트

# 플랫폼에 돈을 내는 소비자, 돈을 받아가는 소비자



최재연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여러분은 몇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디지털 플랫폼 없이 생활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을 듯하다. 새로운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얼마만큼의 돈을 쓰는 것이 맞는가?’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진다. 누군가는 어떤 것을 위해 단 100원을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백만 원도 지불할 의향이 있다.

특히 디지털 음원, 영상 콘텐츠, 웹툰 등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에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가치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시간을 즐거움으로 채워줄 콘텐츠를 보는 데에 120원이 필요하다. 이 금액에 대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충전하게 되는 사람 등 반응은 제각각일 터이다. 하지만, 일주일을 기다려 드라마를 보던 예전과

중전비용이 매월 들어가는 고정비가 되는 것이다. 보통은 12,000원을 단위로 마니아들은 월 10만 원 가까이도 쓴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플랫폼에 돈을 내는 소비자의 모습이였다. 물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과금 방식이다. 하지만 또 다른 점은, 웹 소설 플랫폼의 소비자는 영원히 소비자로서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웹 소설 플랫폼 가입자는 웹 소설을 읽는 대가로 돈을 내지만, 동시에 웹 소설을 쓰는 보상으로 돈을 받기도 한다.

네이버 웹 소설의 경우, 누구나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챌린지 리그에서 승격이 되면 베스트 리그로 넘어가고, 베스트 리그에서 또한 인기를 얻으면 웹 소설 작가로 연재할 수 있다. 이렇듯 플랫폼에 돈을 내는 사람과 플랫폼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확히 분리되지는 않고 있다. 즉, 웹 소설 플랫폼의 회원은 누구나 후보 작가인 셈이다.

한 장르를 깊이 섭렵한 마니아들은 ‘내가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각 잡고 ‘전업 작가를 꿈꾸어서’가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입문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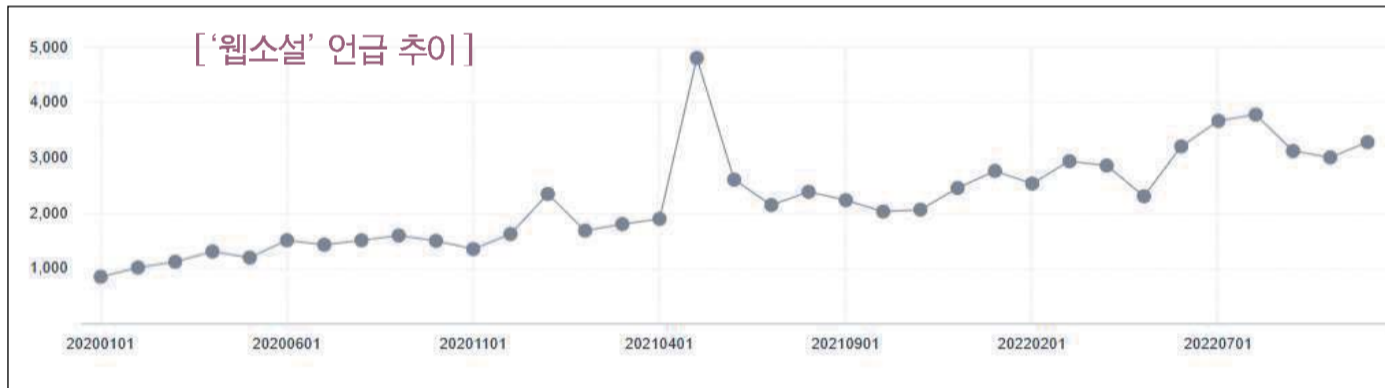
람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대이다. 게다가 등단을 시험하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재미없다면 읽지 않고, 재미있다면 읽어줄 플랫폼 회원들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다. 지금의 작가들도 과거의 독자였고, 그들도 습작 과정을 거쳐 작가가 되었으며, 작가가 된 뒤에도 플랫폼으로부터 다운로드와 뷰 수에 따라 공정하게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정산받고 있다는 사실을 플랫폼 회원들도 모두 알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소비자를 더 이상 소비하는 사람으로만 두어서는 안 된다. 나와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갈 ‘파트너’로 끌어들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아는 것보다는 내가 만든 것에 더 애정이 가는 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 준비된 것보다 내가 직접 참여한 것에 마음이 끌리곤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모여 있는 플랫폼의 회원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곳에 유료 멤버십 회원이 되어 혜택도 누리고, 때로는 콘텐츠 메이커가 되어 돈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잘 보아야 한다. 돈을 받는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이다.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내어주는 것이며, 이런 가능성을 만드는 것은 바로 콘텐츠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이다. 여기서 좋은 관계는 나도 돈을 벌고, 상대도 돈을 벌게 만드는 관계가 된다. 애초에 웹 소설 플랫폼은 ‘고객은 왕이다’의 프레임을 벗어나 독자를 왕으로만 모시지 않았다. 오히려 독자를 미래의 작가, 콘텐츠 제작자, 우리에게서 돈을 버는 고객으로 여긴 것이다. 이러한 점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은 나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고객이다. 소비자를 영원한 소비자로서만 보지 말고 우리 브랜드를 함께 키워가는 파트너로 인지해야 한다. 결국엔 직원이 팬이어야 한다.

| 일반 패키지 | 쿠키 개수 | 가격       |
|--------|-------|----------|
| 1개     | 1개    | 120원     |
| 10개    | 10개   | 1,200원   |
| 30개    | 30개   | 3,600원   |
| 50개    | 50개   | 6,000원   |
| 100개   | 100개  | 12,000원  |
| 200개   | 200개  | 24,000원  |
| 300개   | 300개  | 36,000원  |
| 500개   | 500개  | 60,000원  |
| 700개   | 700개  | 84,000원  |
| 1000개  | 1000개 | 120,000원 |

출처: 네이버 웹소설 홈페이지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커뮤니티, 2020.01.01.~2022.11.30.

2020년 1월, 월 1,000건 정도 언급되던 ‘웹 소설’은 2022년 11월, 3,000건을 웃도는 언급량을 보인다. 단순히 개인의 다양한 가치 판단으로 소비되는 콘텐츠라고 하기에는 계속해서 언급량이 증가하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웹 소설은 2020년 2분기 네이버 시리즈 <재혼황후>, <하렘의 남자들> 등의 광고 영향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웹 소설 역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재되며 금액을 지불하여 소비하는 콘텐츠이다. 웹 소설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일명 ‘기다루(기다리면 다음 화 무료)’는 연재 중인 작품은 일주일을, 연재가 끝난 작품은 하루를 기다려서 한 편씩 보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쿠키’를 충전해서 기다리지 않고 보는 방법이다. 쿠키 1개는 120원, 한 번에 1,000개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웹 소설 한 편은 휴대폰 화면으로 2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으로 쿠키 1개, 즉 120원이다.

는 다르게 OTT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씩을 정주행하는 현시대에 콘텐츠를 기다리는 습관은 이미 쿠키를 충전하는 습관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비정기적이었던

벽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작가로서 도전하곤 한다. 웹 소설 플랫폼은 이러한 애호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책을 읽으려는 사람은 예전만큼 많지 않지만, 책을 쓰고 싶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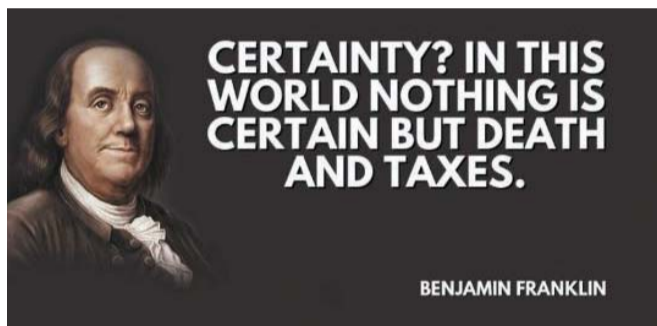
# 금투세에 대한 찬반논쟁(論爭)

## 금융투자소득세의 정의, 도입 취지, 그리고 역효과

성경 희('주호선생', 리얼스탁애널리스트)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의무를 행하지 않을 시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이러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는 시장 경제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들(The Founding Fathers) 중에서 한 명으로 미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100달러 지폐에 새겨진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실제 세법에 따르면 세금은 거주자의 사망 시가 되어야 납세의 무가 종결된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라는 말도 존재한다. 위의 말들을 종합하면 세금의

중요성과 의무를 강조하며, 소득을 얻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납세의 기본 원칙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납세의 의무는 앞서 말했듯이 세법에 의해 규정된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법은 법인이나 개인인지에 따라 또는 수입을 얻은 방식 등으로 분류되며 납세자에게 법에 따라 납세를 하도록 규정한다. 납세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면 금융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은 어떠한 법률을 통해 납세를 할 것인가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통과된 법안이며 경기 불안정 등의 이유로 현재는 2025년까지 법의 시행을 연기시켰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에 왜 찬반의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왜 이슈가 되는지 대해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2025년부터 시행될 금투세는 소득세에 포함되어 있다. 금투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득세는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분류 과세에 해당한다. 분류 과세에 포함되는 것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분류 과세에 신설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과 관련된 소득에 대하여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율이나 세액계산의 방식이 바뀌게 된다.



먼저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과세기간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상장 주식과 펀드 합산 연 5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이다.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이 연 5천만 원까지는 금투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5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에 대해서는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순수익이 3억 이상이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가 적용된다. 이 세율을 이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금융 투자 이월결손금(손실공제)을 빼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연 5천만 원)를 뺀 뒤에 세율을 곱하면 된다.

### 금투세의 도입 취지와 역효과는?

2020년 12월 금투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당시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말했듯이 현행 세법으로는 주식수익으로 인한 세금은 증권거래세가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식 투자로 3,000만 원 손해를 봤지만, 펀드 투자로 1,0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를 모두 내야 한다. 하지만 금투세를 도입하면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총 2,000만 원의 손해가 나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음으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도입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현 세법상 금융 투자 상품별로 과세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채권, 펀드에 투자할 때, 5,0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 각 상품의 수익이 같으면 일괄적으로 같은 세액이 부과된다.

반면, 금투세 도입의 역효과를 주장하며 도입을 늦춰야 된다는 입장도 합리적이다.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020년과 현재 2022년의 증권시장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각국의 금융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돈의 가치가 높아졌고, 이로 인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연간 금융 투자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 중 상당수가 주식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가 더욱 감소하여 주가가 더 내려간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 수익까지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이들이 빠져나가게 되어 기업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며 투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시행되면서 증권거래세가 폐지



Table with 2 columns: 찬성 (Pros) and 반대 (Cons) regarding the new financial investment tax.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한 과세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으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금융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5,000만 원의 수익이 넘기 전에 팔아서 장기투자자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2020년 기준으로 1만 5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세 부담은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어났을 거라고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선진국형 소득세 방식인 것은 분명하며 금융 상품별로 균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시행 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경기 침체에 시행하는 것은 투자심리 감소 등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도입 시까지 2년의 기간이 유예된 만큼 투자심리를 지키면서, 자국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수정해나가기를 입법 당사자들에게 희망한다.

동문(同門)의 소리

# Army TIGER 시범여단 소대장이 보내는 편지



중위 박다애(3사 56기)  
제25사단 70보병여단  
Army TIGER 시범여단전투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3사 56기로 졸업하여 현재 소대장 임무를 수행 중인 박다애 중위입니다. 저는 현재 육군 최초 Army TIGER 시범여단의 소대장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Amy TIGER(아미타이거)란, '육군'과 '제4차산업혁명 기술'로 강화된 지상군의 혁신적 변화가 합쳐진 뜻입니다. 즉, 미래전에서 웨어플랫폼을 착용한 전투원이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가 된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여 미래전장을 누비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소대장으로서 많은 전투실험, 전투시연 등을 통해 미래전에서 육군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 몸소 체험했습니다. 드론, 다목적 무인 차량 등 다양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면서 '미래전장에서는 더 강하고 스마트한 육군의 일원으로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아무리 최첨단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대장으로서 평시에 소대원 개개인의 성향과 수준을 파악하여 전시에 그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 임무와 적 상황, 지형 등을 고려하여 전투의 최소단위인 보병소대의 전투대형과 사격, 기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 순간 판단하고 결심하는 것 등의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새로운 첨단체계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유별나고 생소한 것이 아닌, 우리가 이미 배웠고 여러분이 지금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육군3사관학교의 훌륭한 커리큘럼에 따라 2년간 배우고 체험하고 습득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야전에서 상당한 밑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2년이탄 생도 생활이 2년 내내 마냥 즐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듯 때로는 마냥 길고 버겁게만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저 놓치지 않고 잘 새긴다면 그 순간은 머지않은 미래에 내 부하를 살리는 지혜로 빛날 것입니다.

사관생도 시절 막연하게 꿈꾸던 오만 촉광 다이아몬드의 자격자인 소위가 되는 'Become'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임관 후 이전에 나가 소대장, 또는 참모로서 임무수행을 하게 될 때 나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Being'에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행복은 'Become'이 아닌 'Being'에 담겨 있으니 임관 이후의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사관생도 과정 동안 열심히 배운 기분을 바탕으로 야전에서든 멋지게 임무수행하는 장교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날 지금보다 더 나은 선배가 되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년 총동문회 워크숍



▲ 총동문회 워크숍 참석자들의 기념사진

지난 12월 9일,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총동문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박주왕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총동문회 임원, 각 기수 및 지역 동문회 회장단 120명이 참석하였으며, 총동문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총동문회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동문회장은 인사말과 토의를 진행하며 시대와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총동문회의 미래를 그려야 할

때이며, 젊고 유능한 총동문회가 되어야 힘을 강조하였다. 워크숍은 총 2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총동문회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진솔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며, 2부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3가지 주제(총동문회 참여의식 고취 및 유도, 모교 우수생도 모집 정책적 지원, 동문회관 확장 초석 다지기)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동문들은 총동문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정리된 내용을 잘 정리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3시 총동문회



워크숍 진행간 참석자들의 모습

### 동문 지휘부대(수도군단, 26기 고창준 장군) 위문

지난 11월 15일, 박주왕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3사 동문인 고창준(26기) 장군이 지휘하는 수도군단을 방문하여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동문회장은 국토방위에 여념 없는 고창준 장군과 수도군단 장병들에게 감사인사를 전달하였으며, 고창준 장군은 총동문회의 부대 위문과 격려에 감사하며,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자세로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3사총동문회



▲ 위문금 전달식 간총동문회장과 고창준 장군의 기념사진

### 동문 지휘부대(3사단, 29기 박진희 장군) 위문

지난 11월 18일, 박주왕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3사 동문인 박진희(29기) 장군이 지휘하는 3사단을 방문하여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동문회장은 중부지역 최전방을 지키는 백골 부대 박진희 장군과 장병들에게 감사인사를 전달하였으며, 박진희 장군은 총동문회의 부대 위문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는 백골 부대가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3사총동문회



▲ 위문금 전달식 간총동문회장과 박진희 장군의 기념사진

### 임관 10주년(46기) 기념행사

지난 12월 2일, 46기 임관 10주년을 맞아 46기 동문과 가족들을 초청하는 임관 기념행사를 마련하였다. 학교에 방문한 동문과 가족들은 중헌비 참배를 시작으로 충성의식 관람, 역사관, 충용관 견학 등 10년 전의 생도 시절로 돌아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충성의식 행사 종료 후에는 학교 장병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 발전기금을 1천 5백만 원을 출연하여 전달하였다.

3사총동문회



▲ 46기 임관 10주년 기념행사단체사진

### 동문 지휘부대(32사단, 27기 김관수 장군) 위문

지난 12월 6일, 박주왕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3사 동문인 김관수(27기) 장군이 지휘하는 32사단을 방문하여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동문회장은 다양한 작전요소와 전군에서 가장 많은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김관수 장군과 장병들에게 감사인사를 전달하였으며, 김관수 장군은 총동문회의 부대 위문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는 백룡 부대가 되기 위해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3사총동문회



▲ 위문금 전달식 간총동문회장과 김관수 장군의 기념사진

### 총동문회 창립 30주년 모교 발전 유공자 감사장 수여식

지난 11월 22일,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총동문회가 서울 양천구 총동문회관에서 3사관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7인을 선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취임한 박주왕(19기) 총동문회장과 3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교발전협력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그동안 모교 지원에 기여한 동문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장은 이철성(9기) 3사관학교를 사랑하는 모임(3사모) 회장과 한만우(3기), 김분중(21기), 김종학·오영일(23기), 안

경일(33기) 동문, 임문택(3사 공보정훈실장) 중령이 받았다. 이철성 동문은 3사모 회장으로서 우수생도 모집과 후배들의 안정된 군 생활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모교 발전과 정예장교 양성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만우 동문은 졸업생 최초로 1억 원의 거액을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했으며, 김종학 동문은 영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모교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임문택 실장은 3사 SNS 콘텐츠 제작 등 학교 홍보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주왕 총동문회

장은 “그동안 동문회 발전에 힘써주신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걸 깨달으면서 분들을 위한 감사는 많이 전했는데, 정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행사 기획 취작 모교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지를 설명했다.

3사총동문회



▲ 감사장을 수여한 모교발전유공자들과 박주왕 총동문회장(가운데)의 기념사진

